

族譜를 통한 北宋 士大夫의 內面意識 探究*

- 歐陽修的 『歐陽氏譜圖』를 중심으로 -

박준수**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歐陽氏譜圖』의 體例와 特徵
 - 1) 창작배경
 - 2) 構成 體例
 - 3) 體例의 特徵 確立
3. 族譜 修纂의 의도
 - 1) 編纂環境과 家族觀
 - 2) 宗教觀과 生死觀
 - 3) 사대부 의식
4. 결론 - 北宋 사대부의 시대정신과 내면 성찰

1. 들어가는 말

송 태조 조광윤은 당말·오대의 혼란한 천하를 평정하고 새로운 이념과 체계를 담은 국가를 건립한다. 송나라는 귀족의 권문세가에서 과거로 등용된 사대부로 권력층이 이동한다. 또한 태조는 건국 후 “사대부와 政事에 언론을 펼쳐 상소한 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유훈을 남기고,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강력히 유지된다.¹⁾

실제 『宋史』에 기록된 北宋관료를 분석하면 권문세가 출신으로 晚唐에서 北宋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1) 潘永因 『宋稗類鈔』 卷1 “太祖勒石，鎖置殿中，使嗣君即位，入而跪讀，其戒有三：一，保全柴氏子孫；二，不殺士大夫及上書言事之人；三，不加農田之賦。”

까지 관직에 오른 사람은 76%에서 13%로 하락했다. 晚唐 寒門으로 관직에 오른 인물은 9.3%였지만 北宋에는 58.4%로 증가하여 北宋의 관료출신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²⁾ 또한 가족형태도 귀족출신의 폐쇄적인 문벌이 점차로 쇠락하고, 寒門이지만 학문 수양을 통한 개방적 계층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자신의 가족형태를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에 보편적인 禮敎를 전파한다. 이런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는 가문의 家譜를 편수하고, 祭法을 강구했으며 의례와 家規를 更訂하고 義莊을 세우고 鄉約을 개정했다.³⁾ 특히 族譜는 歐陽修와 蘇洵에 의해 새로운 형태와 관념을 담아서 편찬된다. 그것은 단순히 집안의 역사와 인물, 전통을 기록한 인류학적 기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대 인물과 관점을 담고 있어 사대부의 가족관과 내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族譜를 편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歐陽修와 蘇洵은 각자 族譜를 지었다. 歐陽修는 漢代의 年表를 의거했고, 蘇洵은 禮記를 본받아서, 大宗과 小宗의 방식으로 순서를 정했다. 비록 體例는 같지 않지만, 모두 그 조상의 선후 관계를 고찰하기 충분했다.⁴⁾

『塵史』는 北宋의 필기로서 당시의 전장제도와 인물에 대한 풍부한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王得臣은 族譜의 편찬이 전란으로 중단되고, 歐陽修와 蘇洵에 의해 창작되어 사대부 계층이 널리 본받았다고 적고 있다. 北宋의 학문과 능력 위주의 관료선발은 사회의식과 학술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한다. 단순히 전란으로 인해 귀족이 몰락하고 과거 시행으로 지배층이 교체됐다는 것은 표면적 이해일 수 있다. 그럼 신중 사대부와 명문가는 자신들의 名望과 가족부흥을 어떻게 성공하고 지속시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家廟을 설립하고, 族產을 모집하고, 族譜를 編修했다. 단순히 권력층이 교체된 것을 넘어서 사대부들은 당대의 귀족과는 그

2) 孫國棟 「唐宋之際社會文第第之消融」 『新亞學報』 4卷 1집, 1959년, 245쪽, 260-262쪽 참고.

3) 『歐陽修全集·唐歐陽珣碑』 卷140 “唐의 世族은 天寶의 난을 당하여 그 族譜를 잃어버린 자가 많았다.(唐之士族遭天寶之亂, 失其譜系者多.)”

4) 王得臣 撰, 『塵史』 卷三 “譜牒不修也久矣……歐陽文忠公, 蘇洵明允各爲世譜. 文忠依漢年表, 明允效放禮, 以大宗小宗爲次. 雖例不同, 皆足以考其世次也.”

발생과 전승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대부는 州郡의 관직에 오른 자로, ……(河南府) 그 땅의 대소와 고하의 명망으로 경중을 따져야 한다. 그렇지만 땅이 넓고 명망이 높아도 재상과 명신의 지위에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여 일 이년에 그쳤고, 심하면 반 년 만에 바뀌었다.”⁵⁾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했는지 살펴보자. 통상적으로 사대부는 관직에 올랐거나 입사하지 못한 독서인을 통칭한다. 이들은 고위직에 올라 경제적 기반인 토지를 소유하고 입신을 위해 과거를 보거나 학문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다. 또한 一族의 제사를 모시고 후학을 양성하는 유가적 이상생활을 추구했다.

北宋의 관직 진출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과정이었고, 사회 전반에 인쇄, 출판, 장서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고위직에 오르고, 그 一族도 부귀한 지위와 이익을 향유하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출현했다. 신흥 사대부는 과거에 합격하여 공명을 획득해야만 겨우 그 정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위와 함께 재부가 증가했고, 이것은 바로 가족이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족의 교육과 家規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살펴보자. 신진 관료층은 北宋 초 아직 미관말직에 머물렀지만 먼저 교육 사업을 통해 후세의 훈육에 힘을 썼다. 이것을 위해 一族은 반드시 좋은 서적을 구비하여 수장하고, 우수한 선생을 초빙하여 자제들을 가르쳤으며, 재부를 갖춘 부호와 결혼하여 학문에 研讀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가운데 신흥 지배층에 오른 이들은 가문에 대한 정비와 유지에 힘을 쏟는다. 韓琦는 재상에 오른 후, 조상의 사적을 찾아내어 譜牒을 증수했고, 家廟과 墳墓를 건조했으며, 자제들이 鄉約할 것을 훈계하였고, 萬籍堂을 지어 서적 일만 권을 수장하여 가족과 자제들에게 研讀할 것을 권유했다. 歐陽修도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관직에 있는 숙부들에 의지했지만 빌려서라도 책을 계속 읽었다. 후에 현귀한 지위에 올라 장서 1萬卷을 소장했고 자신의 號를 六一居士로 하였으며, 蘇轍은 “장서 萬卷은 자제를 교화할 수 있지만, 유산 滿籟은 항상 재난이 된다.”라고 말했다.

5) 『歐陽修全集·送楊子聽戶曹序』卷64, 485쪽 “士之仕於州郡者, 必視其地大小高下之望以爲輕重, ……然地大望高, 居者皆將相, 名臣, 達官, 居又不久, 率一二歲, 而甚者半歲而易.”

다.⁶⁾

사대부의 학문연구와 교육에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토지를 통한 전세를 받는 것에 집중되었고, 사대부들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창작과 학문에 집중한다. 이러한 외적인 형식인 장서와 원림, 관학교육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문내의 교육과 예절에 관한 정비와 체계화이다. 송초 包拯은 엄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치고, 역시 교육에 있어서도 家規와 도덕을 중시하는 유훈을 남긴다.⁷⁾

신진 사대부의 내적 가치로 가장 중요한 가치 목록은 바로 충과 효이다. '忠'은 군왕과 천하에 자신의 신념을 다해 봉사하는 행위이고,⁸⁾ '孝'는 단순히 조상에 대한 봉양이 아니라 가문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고, 一族의 안위와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⁹⁾ 그래서 본고에서는 사대부 가문의 기록물인 家譜를 통해 北宋 사대부의 내면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北宋 초 가문은 각자의 家規와 교육방식으로 자손을 결속하고 가묘와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族産을 설립한다. 北宋 초에도 몇몇 族譜가 편찬되었지만, 새로운 체계와 사상으로 사대부의 정신을 담은 것은 歐陽修와 蘇洵의 族譜이다. 그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族譜의 體例를 창시했고, 그 방식은 후대에 계속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北宋 초 사대부의 외적 상황과 내면적 사고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주장과 심층적 바탕의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歐陽修를 대표하는 北宋 사대부의 族譜 修纂 體例와 의미, 그 의도를 설명하여 유가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족관 형성에 대한 역할을 살펴보려고 한다.

6) 『歐陽修全集·墓誌銘』附錄 卷3 “晚年自號六一居士，曰‘吾《集古錄》一千卷，藏書一萬卷，有琴一張，有棋一局，常置酒一壺，吾老於其間，是爲六一.’”

7) 潘永因 『宋稗類鈔』卷13 “후세의 자손들은 관직에 임해서, 부패하고 법규를 어기는 자는 우리 가문으로 돌아와 들일 수 없다. 사망한 이후에도 선영에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包孝肅家訓云，後世子孫仕宦，有犯贓濫者，不得放歸本家。亡歿之後，不得葬於大塋之中。不從吾志，非吾子孫。共三十七字，其下押字又云，仰珙刊石，豎於堂屋東壁，以詔後世.)

8) 范仲淹 『范文正集·岳陽樓記』卷7 “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

9) 范仲淹은 家門의 義莊을 설치하여 제사와 교육에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歐陽氏譜圖』의 體例와 特徵

1) 창작배경

宋代의 정치체제는 세습을 통한 귀족정치에서 과거를 통한 광범위한 문관정치로 변화한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한 것은 사대부들로 자신들의 능력과 이를 유지하는 전통을 가문에서 면면히 전달하기 노력했다. 본고는 사대부 개인에게 가문은 어떠한 존재이고, 자신에서 출발하여 선조를 어떻게 규정하고 후세로 전승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歐陽修가 修纂한 『歐陽氏譜圖』의 구성과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族譜는 부계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계의 傳乘狀況을 기록한 문서로, 위진남북조에서 唐代까지 귀족 가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당대까지 族譜는 관방의 편찬을 통해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출신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즉 조상의 내력을 기술하고 증명하는 공문서의 형식을 지녔다. 하지만 五代十國의 혼란과 송 태조의 개국 遺訓에 따라 귀족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族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신진 사대부들은 새롭게 자신과 그 가문에 대한 의미를 기록하는 여러 기록방식을 시도한다.

그럼 宋代 族譜는 어떤 기능을 지니는 지를 살펴보자. 먼저 一族內的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사대부들도 이전 귀족과 마찬가지로 높은 관직에 오르고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자, 一族의 祭祀와 財産을 관리하고, 祠堂을 설립한다. 물론 族譜의 명칭은 家譜, 宗譜, 世譜, 家乘 등으로 다양했지만 중점적인 내용은 一族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리와 규정의 확립에 있었다.

표면적으로 族譜의 체계와 내용은 一族의 전승상황과 가문전통에 대한 해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族譜와 관계된 墓誌銘과 祭文, 族譜 序跋文의 문장을 참고하여 읽어보면, 歐陽修를 비롯한 사대부의 가족관과 生死觀 등을 내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北宋 歐陽修의 사찬 族譜 修纂 외면적 형식과 그 의도를 분석하여 신진 사대부의 가치관과 인간적 내면의식을 탐구하는 기초자료

로 삼고자 한다.

2) 構成 體例

『歐陽氏譜圖』의 편찬은 모친인 鄭氏의 사망에 따른 장례와 요절한 두 부인을 함께 이장하고자 本籍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¹⁰⁾ 초본은 皇祐 5년(1053)에 착수하여 至和 2년(1055) 완성된다. 그 후 熙寧 3년(1070) 부모의 공덕을 적은 「瀧岡阡表」를 비석에 새기면서 앞쪽에 『歐陽氏譜圖』를 수정하여 기록한다. 『歐陽氏譜圖』는 남송 周必大가 歐陽修 문집을 정리하고 명대 후손이 간행하면서 석본의 오류를 개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된 판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진행한다.

『歐陽氏譜圖』는 주요 내용이 「譜序」와 「譜圖」, 「略傳」 세 부분으로 매우 간명하게 구성되었다. 「譜序」는 주로 一族의 기원과 조상의 관직, 이동, 族譜의 修纂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譜序」에서 歐陽氏의 발생과 계승 상황을 전설시대부터 시작하여 정리한다. 이렇게 조상을 거슬러 올라 시조까지 언급한 것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와 鄉里의 구술을 정리한 것이다. 그 서술과 표현에 있어 담담하게 그 상황만 서술하고, 계승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歐陽修는 역사 서술의 공정함과 간략함을 본받아 亡逸된 사적은 생략하고 중요하고 고증할 수 있는 부분만 기술했다. 즉 일관된 遺傳과 考證에 집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료만 정리하여 전체 기록의 통정확도에 무게를 두었다.¹¹⁾

「譜序」에 따르면 歐陽氏의 시조는 夏禹의 후손에서 本을 찾고, 氏名은 鼻祖가 周代 歐陽亭侯로 책봉되어, 그 지명에서 성씨가 생겼다고 것을 적었다. 이후 한대에서 당대까지 선조의 사적과 시대적 사건과 연관 지어 전승관계를 적고 있다. 하지만 「譜序」는 族譜의 전체 계통과 역사를 서술하면서 과장되게 찬양하거나 과장된 표현 없이 객관적 표현에 주력한다. 계속해서 이 글은 송이 건국되고 부친 항렬

10) 당시 歐陽修는 모친의 사망과 지기의 불우를 통해 인생과 종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즉 실의한 체로 사망한 蘇舜欽과 수절하여 집안의 부친 노릇을 한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정을 통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歐陽修全集·書簡十·與十四弟』卷153, 2526쪽 “攀號冤時, 五內分崩, 不孝深蒼天! 罪逆深蒼天, 見在潁州持服.”

11) 『歐陽修全集·歐陽氏譜圖序』卷74, 1069쪽 “自琮以下七世, 譜亡.”

에 급제자가 여럿 나왔고 자신과 후손들이 그 영광을 이어 받은 상황을 적으면서 또한 후손의 분발을 촉구했다. 조상의 移遷 이력과 관직, 역사상황과 연관된 「譜序」의 내용을 살펴보면, 歐陽萬부터 실제 사적을 찾아볼 수 있고 고증할 수 있다. 즉 자신의 8대 증조인 歐陽萬은 安福縣令을 지냈고, 오대십국의 혼란에도 盧陵의 대족으로 정착했다고 적었다. 이후 향리에 머물면서 유학으로 명성을 얻었고 盧陵의 명망가로서 송 건국 후 후손들이 관직에 진출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하여 송 건국 30년 이후 부친인 歐陽觀 향렬에는 4명이 진사에 합격하고, 歐陽修 향렬은 3명이 登科하였고, 그 아들 대는 2명이 登科하였다고 적었다. 8대 증조 이래 백여 년 동안 一族이 흩어지고 위축되면서도 英達한 이가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까지의 서술은 사실의 기록과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編者의 감정개입 없는 객관적 문체를 사용했다.

하지만 다음 단락에서는 자신공적이 선조의 은덕과 보응에 결과라고 걱정적으로 서술한다. 歐陽觀 이전의 선조들은 세상 혼란으로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때가 다다르자 전래의 가훈과 교육을 통해 전통을 이어받아 양명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고아로 자라 先父 遺德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家傳의 내용을 익혀 “임금을 모시는 것에 忠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에 孝로, 관리에 뒀에 清廉으로, 출세하더라도 學問에 정진하라.”¹²⁾라고 정리한다. 또한 부친은 도리를 궁행하면서 親教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깊이 새겼다고 적었다. 또한 唐代 황소의 난을 당하여 간적을 물리치고 향리를 보전하고 음덕이 발현되었다고 칭송한다. 선조들은 가전된 유훈을 궁행하고 후손을 교육하여, 그 정신을 잃지 않았으므로 후손이 번성한 이치로 설명한다. 뒷 구절에서 嘉祐 4년(1059) 謹書라고 적고 있지만, 譜에 歐陽觀의 官爵이 崇公으로 추존된 것을 보면 희녕 3년(1070년)에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譜序」는 족보를 만들면서 자신이 깊이 느낀 감정을 기록하여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가족에 대한 우애를 깊이 표현했다.

이어서 『譜圖』를 통해 시조에서 당시의 一族 성원을 향렬의 순서에 따라 도표로 그려 구체적인 친족관계를 정리한다. 世表는 5世 1圖의 방법으로 부계의 전승

12) 『歐陽修全集·歐陽氏譜圖序』卷74, 1068쪽 “以忠事君, 以孝事親, 以廉爲吏, 以學立身.”

과정을 설명한다. 즉 歐陽修를 기준으로 5세 증조까지를 하나의 표로, 다시 5세 증조부터 9세의 증조를 새로운 世表로 정리하여 계통을 구분한다. 사적을 찾을 수 없는 歐陽琮 이후 7세가 망일됐다고 적었고, 諱字하지 않고 이름과 아들 수를 적었다. 이는 蘇洵의 族譜가 휘자를 적고, 관직, 결혼, 생졸을 적은 것과는 대조적이다.¹³⁾ 『譜圖』의 도표는 『史記』의 世家에서 世表를 통해 왕조의 선후관계를 설명하듯이 자신의 선조와 형제 관계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譜圖』에 이어 「略傳」은 歐陽修 선조의 사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 구절에서 歐陽修는 「略傳」 기록 기준을 親疎에 따라 詳略하게 적는다고 밝힌다. 즉 먼 조상과 지류에 관해서는 사서나 가문의 각 族譜에서 참고하여 정리하며, 歐陽琮에서 「略傳」을 시작한다. 그 기록 사항은 移遷과 관직, 생졸의 사적과 遺德인데, 고증할 수 없으면 闕로 적는다. 「略傳」은 諱字를 사용하고, 부친 항렬에서는 登科 년도와 성품, 일화를 통한 가훈 등을 자세히 적고 있다. 부친 歐陽觀의 사적은 「龍岡阡表」에 적었다고 전하면서 단지 추존된 福祿만을 적고 있다. 숙부인 歐陽曄에 관해서도 관직의 일화를 통해 그 성품과 仁德을 찬양했다. 구양업은 失父한 조카 歐陽修 참지정사에 오를 수 있도록 撫養하였고, 역시 추존된 직함으로 적혀 있다. 자신이 참지정사에 올랐다는 언급에서 살펴보면, 更訂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譜例에서는 자신의 族譜 修纂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즉 歐陽修는 사서의 기록방식을 참조하여, 찾을 수 없는 먼 선조의 기록은 적지 않고서, 譜圖에서 고조 이래 5세 현손까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해 遠近親疎를 구분하고, 먼 一族은 소략하게 가까운 一族은 상세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설명했다. 그래서 玄孫 世系는 가까운 선조를 상세하지만 번잡하지 않고, 간략하지만 누락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적었다. 또한 여러 자손들은 각자 譜牒의 世系를 비교하여 순서와 體例의 마땅함을 살펴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13) 蘇洵 『嘉祐集箋注』 卷14, 374~377쪽 참조.

3) 體例의 特徵 確立

族譜의 體例와 내용은 가문의 전통과 작자의 의도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蘇洵은 “歐陽公이 보고서 감탄을 하며 말하기를 ‘나도 일찍이 그것을 만들었다.’ 꺼내어 그것을 살펴보고 법도가 다른 것이 있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두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천하에 사라지지 않도록 추천하자고 말했다.’”¹⁴⁾ 라고 서술한다.

나는 皇祐, 至和 년간 이래로 歐陽氏의 전적을 구하여 家譜의 빠진 곳을 보충하려고 했다. 지금 顏魯公의 「歐陽珪碑」를 얻었고, 또 鄭眞義의 「歐陽誼墓誌」를 얻어 예전 집에서 전해지는 族譜와 『陳書』, 『元和姓纂』 등의 책과 서로 비교하고, 또 呂夏卿에게 물을 것이다. 하경은 세상에서 박학하기로 유명하고 사전에 정통하여 내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家譜가 마침내 定本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歐陽修의 族譜 修纂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唐代는 官編으로 정리되어, 국가가 귀족의 혈연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면, 宋代는 私撰으로 개인이 종족 자신의 계통과 家傳을 위해 編修한 것이다.

기능적으로 당대의 族譜는 관직과 혼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엄밀한 고증과 조상의 계보를 조사한 것이지만, 宋代는 스스로 종족의 친소관계를 기록하여 一族의 결속과 효제의 교본으로 삼기 위해 편찬되었다.¹⁶⁾

내용상에서도 唐代는 단지 世系의 순서와 그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신, 나이, 관직 등을 기록했지만, 宋代 歐陽修의 『譜圖』는 近世의 단순한 혈연 계통만 정리하고, 이어서 사적, 일화, 家規 등을 다양하게 기록하여 당시 필요한 요소를 첨가했다.

14) 蘇洵 『嘉祐集箋注·蘇氏族譜』卷14 “歐陽公見而歎曰, 吾嘗爲之矣, 出而觀之, 有異法焉曰, 是不可使獨吾二人爲之, 將天下舉不可無也?”

15) 『歐陽修全集·唐歐陽珪碑』卷140 “余自皇祐, 至和以來, 頗求歐陽氏之遺文, 以續家譜之闕. 既得顏魯公《歐陽珪碑》, 又得鄭眞義《歐陽誼墓誌》, 以與家所傳舊譜及《陳書》, 《元和姓纂》諸書參較, 又問于呂學士夏卿. 夏卿世稱博學, 精于史傳, 因爲余考正訛舛, 而家譜遂爲定本.”

16) 鄭樵 『通志·氏族略第一』 “五代十國 이래 관리를 선발하면서 가문을 묻지 않고, 혼인하면서 문벌을 묻지 않았다.(自五季以來, 取士不問家世, 婚姻不問閥閱.)”

歐陽修는 30대 초반부터 문장으로 명성을 얻었고, 황제의 명령과 유족의 의뢰를 통해 다양한 族譜序와 墓誌銘 등을 지었다. 그 문장들에는 그의 가족관과 가치관이 잘 담겨있는데, 그는 이러한 형식에서도 전형적인 찬양일색의 무미건조한 문장을 짓지 않고, 느낌이 풍부하고 사자에 대한 애도와 적극적인 서술을 통해 감정이 풍부하고 인물의 생애가 께진하게 묘사된 글을 지었다. 계속해서 歐陽修의 墓誌銘, 행장과 비교하여, 그가 종족과 인물의 사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녔는지 살펴보자.

공은 세상에 명성이 높았고 문장으로 천하를 이끌었다. 그러므로 단지나(사마광)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후인이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더욱 오래되어 공을 아는 자는 더욱 적어졌고, 후인은 歐陽修의 문장 보는 것이 두려워한다. 세속의 묘지명이 공허한 아름다움으로 수식하여 그 자손의 기쁨을 취했을 뿐이라고 여겼다.¹⁷⁾

일반적인 묘지명 등은 고인의 생애를 과장되게 찬양하고 과시하여 지어졌다. 하지만 歐陽修는 완곡하게 표현하여 고인의 내심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의 묘사 중점은 고인의 관료 생활 가운데의 공적뿐만 아니라 가정과 종족내의 孝悌養親과 친족의 구제 등의 기록이다. 즉 관직 성과가 사대부의 외부적 공적이라면 가족관계는 그 내면 감정을 충실한 기초이다.

오호라! 효는 단지 한 가족의 시행이 아니고, 임금을 모시는 것에 충으로 전달되고, 종족에 어질어 화목하고 벗과 교우하여 신뢰하는 것이다. 한 마을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퍼지니 금석에 새기어 후세에 권고하고자 한다.¹⁸⁾

이상의 묘지명에서 살펴보면, 그의 인생목표는 관직에서 입신양명하는 것과 동

17) 司馬光『傳家集書·孫之翰墓誌後』卷73 “公名高於世，歐陽公以文雄天下，固不待光言而後人信之，然歲月益久，識公者益寡，竊懼後之人見歐陽公之文，以爲如世俗之銘誌，但飾虛美，以取悅其子孫耳。”

18) 『歐陽修全集·太常博士周君墓表』卷25 “嗚呼！孝非一家之行也，所以移於事君而忠，仁於宗族而睦，交于朋友而信，始於一鄉推之四海，表于金石示之後世而勸。”

시에 종족의 굳은 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歐陽修 자신도 一族의 전통을 계승하여 관직에서 성공하는 것을 중시하고, 또한 종족의 조화로운 생활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당시 사대부의 공통된 인생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효의 개념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동족의 부양으로 확대하여 孝養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族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鄭樵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歐陽修는 한 시대의 큰 유생으로 송 300년의 문장 극성을 연 인물이다. ……권문세족이 되어, 一族의 族譜와 사당이 있다. 매년 제사는 반드시 예로서 지내고, 장유유서의 절도가 있어 친소의 구분이 없었고, 귀천의 구분이 없어 군인, 노비에 이르렀다. 자손이 수십 세까지 이어져 공명과 의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집안의 범절은 법률보다 엄숙했고, 향리의 평가는 도끼보다 엄정했다.¹⁹⁾

宋代의 族譜의 편찬은 一族의 家教를 전달하고 효계중심의 마음을 교육하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歐陽修는 자신의 씨족이 吉州의 유력한 종족이었으며 각자 族譜를 정리하고, 족산을 만들어서 사당을 세우고,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예의를 다해 家範을 엄정히 정리한다. 이렇게 씨족들의 행적과 世系 기록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族譜의 진정한 목적이다.

3. 族譜 修纂의 의도

1) 編纂環境과 家族觀

歐陽修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왜 자신의 혈연적 관계를 확인하고, 친척 간의

19) 鄭樵『江西通志·吉安府』卷26 “至歐陽修一代大儒，開宋三百年文章之盛，……故家世胄，族有譜家有祠，歲時祭祀必以禮，長幼之節，疏不間親，貴必下賤，蒼頭臧獲，長子孫數十世，名義相續屬不絕，家範肅於刑律，鄉評嚴於斧鉞。”

유대와 가족관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 歐陽觀이 재임하고 있는 綿州(四川省蘇陽縣)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4살에 부친을 잃고, 숙부인 歐陽燁의 부임지 隨州(湖北省隨縣)로 가서 의지하면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합격한다. 그 후 洛陽과 中央, 地方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게 된다. 퇴임 후는 穎州(安徽省阜陽市)에 은거하고 사후에는 開封府 교외에 매장된다. 本籍인 永豐縣에 귀향한 것은 부친이 사망한 大中祥符4년(1011년)과 皇祐5년(1053년) 모친과 요절한 두 부인을 매장하기 위해 방문한 두 차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歐陽修는 어떻게 歐陽氏의 전통과 가풍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가 熙寧3년(1070년) 石碑의 뒷면에 새겨 넣은 「瀧岡阡表」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가족 상황은 「瀧岡阡表」와 그 초고인 「先君墓表」와 숙부의 墓誌銘, 譜圖의 略傳을 통해 알 수 있다. 두 묘지명은 모두 선친의 정신과 가풍을 모친의 구술을 통해 적고 있다. 모친 정씨는 남편의 품행과 사적을 일화를 들어 이들에게 전달한다. 歐陽觀은 모친의 복상이 끝나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충분히 孝養을 못했다고 한탄했다. 또한 사형에 처하게 된 죄인에게 방책을 찾아 처형을 면하게 하려는 일화를 거론하여 仁愛의 관직태도를 적고 있다. 즉 歐陽修 집안은 가정에서 효제를 중시하고, 관직에서는 簡約과 仁愛를 시행하여, 자손이 항상 명심하는 家教로 삼았다. 그래서 두 묘지명의 뒷부분에 “이것이 네 부친의 뜻이다”라고 하자, (歐陽修는) “옳조리면서 감히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깊은 감동을 새기고 있다. 이러한 부친의 유지를 어떻게 진작하여 후손과 一族에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그는 『譜圖』에 뒷면에 「瀧岡阡表」를 새겨 넣는 것으로 本貫의 一族과 자손에게 그 의도를 전한다.

歐陽修는 관직에 머물면서 세 차례의 꺾적을 당하는데, 이 가운데 두 번은 가정사와 연관이 있다. 먼저 경력신정이 실패하고 좌천당하는 계기가 된 張甥案에서 張氏의 재산을 이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一族의 토지로 등기한 것이 드러나 결국 滁州로 좌천된다. 이 사건에서 추문은 무고였지만, 歐陽修가 一族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一族의 번영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歐陽修는

말년에 長媳案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은퇴한다. 두 차례의 추문의 내면을 살펴보면, 歐陽修는 부모를 잃은 一族을 보살폈고, 친족 간의 관계도 밀접했으며, 직접 죽산을 운용하고 교육에 관여하여, 가족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族譜를 만든 바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 지류와 맞닿아서, 존귀한 것을 존중하고 친한 것을 친하게 하는 이치가 그것에 있기 때문이다. 一族을 순서로 적다보면 종종 그것이 있다. 하지만 거짓되면 옛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를 건문이 넓다하고, 과장되면 다른 一族을 옆으로 끌어내어 영광되게 생각하니, 그 선조를 거의 기만한 것이 아니겠는가!²⁰⁾

신흥 사대부는 유교적 교양을 지닌 관료층이지만 빈한한 가문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一族이 더욱 단결하여 가문의 전통과 교육, 스스로의 수양을 중시했다. 그는 가문이 자신의 내면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손의 교육을 통해 가문의 이상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지녔다. 즉 그는 죽음을 초월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禮制를 통해 체계화하고 유교적 가족관을 확립했다. 또한 혈족의 정신적 기반으로 연대를 이끌 수 있는 族譜를 완성하여 혈족의식을 중심으로 삼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宗教觀과 生死觀

北宋의 사대부는 당말 문인들의 경향에 물들어 불교와 도교 등의 종교에 침잠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王安石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致仕하고, 남경에서 종교적 가치관, 정서, 境界를 담고 있는 詩文작품을 창작하였다.²¹⁾ 또한 부필 등의 사대부들도 청년기에는 경전과 종교를 이성적으로 懷疑했지만, 세월과 인생에 대한 心得을 바탕으로 만년에는 종교적 성향을 많이 띠게 된다. 이에 반해 歐陽修는 앞서 말했던 가문에 대한 중시와 理智主義的 경향이 강해 동료 문

20) 『歐陽修全集·衡陽漁溪王氏譜序』卷150 “予惟族譜之作，所以推其本，聯其支，而尊尊親親之道存焉。世之譜其族者，往往有之，然誕者上推古昔以爲博，誇者旁援他族以爲榮，不幾于而文誣其祖乎！”

21) 張煜, 『王安石與佛教』, 復旦大學博士論文, 2004年 참조.

인들과는 상이한 선택을 한다.

『詩經』과 『書經』이 秦代에 이르러 재로 타버림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불교와 도교는 이것의 서화가 뛰어남에 의지하여 진귀하게 소장되었다. ……집정자로 두드러지고 명사로 알려진 사람도 청년기에는 힘써 이설을 배척하지만 늙어 병들어 죽음을 두려워하면 도불에 귀의하여 오히려 늦게 안 것을 종종 이와 같이 애석하게 여긴다. 진실로 탄식할 만하다!²²⁾

北宋은 당대의 영향으로 도교보다는 불교가 극성한다. 하지만 민간의 신앙과 결합한 불교는 求福과 歸俗을 추구하는 목적의식이 강했고, 풍속을 왜곡시키고 天人感應說 등의 미신적 요소가 많이 침투하여 종교적 가치가 퇴색한다.

歐陽修는 당시 유행한 종교들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지니는데, 이는 자신의 유학 경전에 대한 신뢰와 이지주의적 회의정신에 기인한다. 그는 유가의 河圖洛書에 대해서도 荒誕怪異하여 믿을 수 없다고 그 출처를 의심하였고, 『周易』을 통해 占卜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무릇 만물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다. 하지만 추론컨대 알 수 없는 것은 성인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²³⁾ 라고 하면서 미신적 요소에 회의를 품는다. 본고에서 歐陽修의 종교관과 생사관을 정리하는 것은 그가 韓愈의 「原道」를 이어 排佛精神을 계승하고, 어떻게 北宋 사대부의 인생관을 정립하였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한유의 「原道」는 도학의 근원을 탐구하여 유가의 '仁義道德'이 근본이라고 말하고, 道統論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儒道의 계승자로서 俗物的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여 상주한다.

歐陽修 역시 「本論」에서 불교는 堯舜의 王道政治가 몰락하고, 유가의 禮敎정신이 약화되어 얻은 병환이라고 적고 있다. 즉 왕도정치를 회복하고 예의를 재건하면 불교는 자연히 민중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排佛의 이면에는

22) 『歐陽修全集·唐徐浩玄隱塔銘』卷140 “《詩》, 《書》遭秦, 不免燬盡. 而浮圖, 老子以托於字畫之善, 遂見珍藏. ……比見當世知名士, 方少壯時力排異說, 及老病畏死, 則歸心釋老, 反恨得之晚者, 往往如此也. 可勝歎哉!”

23) 『歐陽修全集·物有常理說』卷129 “凡物有常理, 而推之不可知者, 聖人之所不言也.”

불교의 국가재정의 파탄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저 사람이 불자가 되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부부의 연을 끊었으니, 사람의 본성이 매우 어그러졌고, 쯤이 값아 먹는 폐해가 있다.”²⁴⁾라고 불교가 중국적 정서의 변형을 비판한다.

불교로 인한 폐해에 대해 “무엇으로 폐해들이라고 말하는가? 백성을 미혹하는 폐해, 토지를 겸병하는 폐해, 쓸데없이 힘을 쓰는 폐해가 있어 삼가 그것을 상세히 말하고자 한다. 지금 불당에 앉아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일을 하지 않는 자를 불교도라고 말한다.”²⁵⁾ 즉 국가와 민간의 재정을 좀먹고, 미혹한 사상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불교의 성격에 반감을 갖고, 北宋 사대부들이 부모의 위패를 절에 모시는 일반적 관행²⁶⁾을 거부하고, 부모의 묘소와 위패를 도관에 맡겨 제사를 모시게 한다.

歐陽修의 도교와 생사관에 대한 관점도 불교를 비판한 것과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다.

에부터 道는 있었지만 신선은 없었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도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 도를 얻지 못했다. 신선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신성을 배우려했다. ……도라는 것은 자연의 도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후세에 영생을 탐하는 무리들이 양생의 술수로 극단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⁷⁾

이상의 歐陽修의 道佛 비판은 儒家的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민중과 사회를 타락시켜 재정을 낭비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관에도 여러 미신적 요소가 섞여있다. 즉 그는 부모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灌

24) 『歐陽修全集·本論下』卷17 “彼爲佛者，棄其父子，絕其夫婦，于人之性甚戾，又有蠶食蟲蟲之弊。”

25) 『歐陽修全集·原弊』卷59 “何謂衆弊？有誘民之弊，有兼併之弊，有力役之弊，請詳言之。今坐華屋享美食而無事者，曰浮圖之民。”

26) 李燾 『續資治通鑑長篇』卷279 “王安石奏，乞施田與蔣山太平興國寺充常住，爲其父母及子營辦功德從之。”

27) 『歐陽修全集·刪正黃庭經序』卷65 “自古有道無仙，而後世之人知有道而不得其道，不知無仙而妄學仙，……道者，自然之道也，生而必死，亦自然之理也。以自然之道養自然之生，……後世貪生之徒，爲養生之術者，無所不至。”

岡阡表」에서 “有待(후일 복을 받을 것)”를 반복하고, 접쟁이의 “歲行在戌, 將死(庚戌년에 죽을 것이다)”라는 점괘를 기록한다.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이 비합리적이라 하여 비판한 불교의 蔭德報恩說과 因果應報說이다. 음덕보은설은 命理를 해석하는 것으로 정통유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음덕과 그 관념이 중국에 들어와서 유가사상과 결합하여 선행을 장려하는 전통으로 굳어진다. 인과응보설 또한 윤회를 기반으로 하여 역시 유가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후손에게 교육으로 장려하는 가족관념 강화에 부합하여 널리 퍼진다. 인과응보설은 歐陽修가 지은 수많은 묘지명에서 나타난다. 즉 “선행의 효험은 보답 받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더딤과 빠름을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손에 나타날 것이고, 혹 당사자에게 회미할 수 있지만, 후세에는 반드시 영달할 것이다.”²⁸⁾라고 적고 있다.

道佛와 생사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보면, 그는 한유 등의 사대부 정신을 본받아 불교, 도교 사상을 거부하고, 유가적 가족관념 변형을 반대했다. 또한 사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인 재정의 낭비를 깊이 반대한다. 하지만 종교의 철학적, 내면적 教義와 이론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비판은 부족하다. 특히 이학자들은 결코 歐陽修 등의 北宋 사대부의 종교관을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견해가 천박하고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²⁹⁾

하지만 歐陽修 인생의 전체 학술관과 사상을 일람하고 그 맥락을 살펴보면 그의 계승자와 새로운 가치를 든 사람으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배불의 목적을 완성할 수는 없고 이론적 깊이가 부족했지만, 유학을 진흥시키고 예의를 중시하여 사대부의 내면가치를 강화한 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즉 일생 동안 유가사상을 궁구하여 그 가족관을 통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정신을 새롭

28) 『歐陽修全集·孫氏碑陰記』卷63 “爲善之效無不報, 然其遲速不必問也. 故不在身者則在其子孫, 或晦於當時者, 必顯於後世.”

29) 宋 楊時, 『龜山集·與陸思仲』卷18 “또한 불교가 중국에 해가 된지 오래되었다. 사대부는 옛것에 뜻을 두고, 그것을 힘써 배척하고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같은 이가 당 한유, 송 순복, 석개, 歐陽修의 무리였다. 그렇지만 이 몇 사람은 그 앞이 선왕의 도를 밝히고 공명의 학문을 전하기는 부족하였다. (且佛之爲中國害久矣. 士之有志於古者, 力排而疾攻之, 世常有焉. 若唐之韓退之, 今之孫明復, 石守道, 歐陽公之徒, 皆其人也. 然此數人者, 其智未足以明先王之道, 傳孔孟之學.)”

게 정립한 것은 긍정할 만하다. 또한 이것은 유가 가족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한 면도 적지 않다.

3) 사대부 의식

앞 절에서 歐陽修의 종교 관점을 정리하면서 죽음과 삶에 관한 그의 철학을 정리했다. 중국인은 생명에 관해 자신의 생명을 가족과 연관 지어, 그 소멸의 한계를 극복한다. 즉 생명은 형태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존재 가치의 永續은 가족 간의 유대와 선조에 대한 추존과 후손의 전승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혈연의 꼭대기인 조상에 대한 공경과 봉양을 효라고 규정하고, 특히 부계 친족의 단결과 체계화는 특히 北宋 歐陽修를 비롯한 신진 사대부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확립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종교보다는 종족관으로 삶과 죽음을 연결하고, 이것을 확대하여 친척과 향촌에 까지 그 관계를 확대한다.

사대부 계층은 새로운 형식의 族譜를 통해 가문의 전통과 자신의 방향성을 이해한다. 「瀧岡阡表」는 부친의 관직 방향에 대해 청렴한 자세로 관대하고 정간한 행정을 시행했다고 적고 있다. 즉 소박한 생활과 빈객을 환대하며 가혹하지 않은 판단과 번잡하지 않은 행정방향이 적혀 있다. 부친의 품성은 歐陽修에게 바로 전승되어 그의 생애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공은 앞뒤로 7개 수령을 맡으면서, 그 행정이 엄명했지만 가혹하지 않았고, 관대하지만 느슨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이 평안했고, 滁州와 揚州는 살아있는 이의 사당을 지을 정도였다. 모친인 정공은 일찍이 유훈을 말하여, 사형을 실시함에 경계하고 조심하라. 한공이 공에게 말했고, 歐陽公은 평생 그를 실천했다. 30)

그가 말한 孝는 단순히 부모에 대한 봉양이 아니라 종족에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一族 내의 안정에 기여하여 종족의 결속과 통일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 특히

30) 蘇轍, 『歐陽修全集·神道碑』附錄 卷3, 2714쪽 “公前後歷七郡守, 其政察而不苛, 寬而不弛, 吏民安之, 滁揚之人至爲立生祠. 鄭公嘗有遺訓, 戒慎用死刑, 韓國以語公, 公終身行之.”

여성의 묘지명에서 一族의 결속과 조화를 언급한 것이 많은데, 이는 성별적 특성과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歐陽修는 『五代史記』에서 사대부가 대의를 위해 死絶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즉 자신의 '志'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忠節을 중시한 사적을 많이 기록한다. 즉 사대부의 윤리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체적 개인의 존엄이고, 이는 '忠'과 '孝'로 발현된다. 주체적 인격체인 사대부의 충과 효는 삶의 지향성이고, 효의 내용과 사상적 기반은 가족의 결속과 화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군주와의 관계가 충이라면 가족과 종족, 향촌과의 관계가 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대부는 주체적 인격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할 수 있다. 北宋 사대부는 관료정치의 토대를 가족중심의 주체적 생활과 그 전통의 전승이라는 종족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즉 歐陽修뿐만 아니라 范仲淹이 范氏 義莊을 설치하여 가족관을 확립하고 제도의 정비했듯이, 족보의 편찬은 사대부의 내면 사고와 실천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다.

4, 결론 - 北宋 사대부의 시대정신과 내면 성찰

복송 신진 사대부들은 과거를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관직에 올랐지만,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안한다. 즉 가족 내에서 계속 과거에 합격하고 천하와 가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래서 가족의 결속과 화목, 교육을 중시하고 종족의 기록물인 족보 역할을 강화한다. 그래서 私撰族譜가 발전하고, 그 체례는 당시에 필요한 가까운 조상에 대한 분명한 연계와 관직, 가족생활의 교훈을 담고 있다.

선비가 출생하여 모두 자신의 원천을 모르고, 그 先祖의 덕에 親疎에 어둡다면, 그가 금수와 다른 바는 단지 그 부모를 아는 것일 뿐이니, 그 어찌 흠대할 수 있겠는가? 唐代 보첩이 완비되었고, 사대부는 권문세가를 더욱 숭상하기 힘썼다. 그 폐해에 지극함이 혹은 경박함에 빠지고, 혼인을

의탁하고, 뇌물을 요구하여 군자가 걱정하였다. 그렇지만 사대부는 스스로 삼가하고 홀로 서기를 즐기고, 오직 조상의 덕업이 떨어질까만 두려워하니. 또한 보첩이 있지만, 그 조상을 능히 알 수 있겠는가. 현금의 族譜 修纂은 사라지고, 비록 이름난 신하와 변창한 가문이라도 家譜가 있는 적이 없다. 그렇지만 경솔하고 간략하게 속되게 배운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아닐 것이니, 어찌 家譜에 그칠 뿐이겠는가?³¹⁾

歐陽修는 사대부에게 선조의 功業을 기억하기 위해 족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唐代의 폐해를 언급하여 사대부가 힘써야 할 것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족보의 체계를 완성할 것을 독려한다.

족보 수찬의 목적은 종족의식을 선양하고 조상을 칭송하는 효의 실제표현이며, 사대부가 유가 윤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는 과정이다. 즉 족보 수찬은 당시 사대부 계층의 공통된 의식과 기대를 담고 있다.

11세기 北宋은 건국 이후 현실 정치와 사회의 유지에만 급급하여 국가 전체가 약습이 만연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사대부는 范仲淹을 영수로 하여 慶曆新政을 제창하였고, 이어 '苟且因循'을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후반에는 王安石을 대표로 하는 新法으로 강력한 변혁을 꾀한다. 이러한 사회 정치제도의 변화에 맞이하러, 사대부는 내적으로 충절과 효양의 한 축인 가족과 종족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한다. 즉 "先憂後樂"하는 신념을 지녔던 范仲淹은 가족의 결속을 위한 족산을 확립하고, "경력 10조"의 혁신안을 제창한 歐陽修는 엄정한 관직 수행과 家傳 전통을 체계화한 族譜를 보급하여 11세기 사대부의 시대정신을 구현한다.

宋代 이후 중국의 宗族은 一族의 계보를 기록한 族譜, 조상의 제사와 위패를 모시는 사당, 토지를 중심으로 一族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족산을 바탕으로 종족의 유대 정신이 이어진다.

一族의 기록물인 族譜는 歐陽修와 蘇洵에 의해 새로운 방식과 정신으로 개편되

31) 『歐陽修全集·後漢太尉劉寬碑陰題名』卷135 “士生於世，皆莫自知其所出，而昧其世德遠近，其所以異於禽獸者，僅能識其父祖爾，其可忽哉！唐世譜牒尤備，士大夫務以世家相高，至其弊也，或陷輕薄，婚姻附托，邀求貨賂，君子患之。然而士子修飾，喜自樹立，兢兢惟恐墜其世業，亦以有譜牒而能知其世也。今之譜學亡矣，雖名臣巨族，未嘗有家譜者，然而俗習苟簡，廢失者非一，豈止家譜而已哉！”

고, 族産은 一族의 상호부조와 제사를 모시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范氏義莊을 비롯한 방식으로 모아지고, 제사는 朱熹가 『文公家禮』에서 정립한 방식으로 조상에 대한 의례로 완성된다.

이 가운데에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가문에 대한 역사 기록인 族譜이다. 현대에서 당대까지 유지되던 권문세가의 혈통 기록서인 관변 家譜에서, 공명을 얻은 사대부가 자신과 가까운 선조에 대해 기록하고, 후세를 教化하여 그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인 족보가 어떠한 체계와 내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본고에서 정리했다.

〈參考文獻〉

- 歐陽修, 『歐陽修全集』, 北京, 中華書局, 2001年.
 蘇洵, 『嘉祐集注』, 上海, 上海古籍, 1998年.
 鄭樵, 『通志』,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0年.
 陶晉生, 『北宋士族』, 臺北, 中央研究院, 2001年.
 劉德清, 『歐陽修紀年錄』, 上海, 上海古籍, 2006年.
 王善君, 『宋代宗族和宗族制度研究』, 石家莊, 2000年.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년.
 피터 K. 볼 지음,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서울, 북스토리, 2008년.
 피터 K. 볼 지음, 『역사 속의 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10년.
 陳捷先, 「從中國族譜發展看宋代文化」 『中國學報』 제27輯, 1987년.
 遠藤隆俊, 「北宋 士大夫의 日常生活과 宗族」 『中國史研究』 제27집, 2003년 12월.
 陸貞任, 「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적 意義」 『韓國史學報』 제22호, 2006년 12월.
 王鶴鳴, 「宋代族學創新」 『安徽史學』, 2008年 第2期.
 安國樓, 「中國家譜中的『歐蘇法式』深討」 『鄭州大學學報』 第31卷 5期, 1998年 9月.
 余敏輝, 「『歐陽氏譜圖』初探」 『淮北煤炭師範學院學報』 第24卷 5期, 2003年 10月.
 孫國棟, 「唐宋之際社會文第之消融」 『新亞學報』 4卷 1집, 1959년.

〈中文摘要〉

宋代的士阶层, 不但是「宋型文化」的创造主体, 亦是宋代政治的主体. 他们藉由科举及第以入仕途, 并由此做为兴家旺族的起点. 这群以血缘为纽带的士人家族群体, 为了维系其家族地位, 往往十分重视家族子弟们的文化教育, 依靠科举, 文学及道德品性而长盛不衰, 累世相承, 形成了极具家族特色之家学与家风. 并在各具特色的家学与家风引领下, 著宋代政治, 社会, 文化的发展. 因此一直深受韩国学者之关注. 研究宋代的士人家族对于深入认识宋代国家社会发展, 以及文化精髓, 具有极重要的意义与价值.

本文以欧阳氏谱图序以叙述为主, 激发议论, 笔触如行云流水, 一气呵成. 着笔伊始, 欧阳修就道出了先祖世系及姓氏, 在陈述欧阳氏族教育与家风.

欧阳修谱例说“姓氏之出, 其来也远, 故其上世多亡不见. 谱图之法, 断自可见之世, 即为高祖, 下至五世玄孙, 而别自为世. 如此, 世久子孙多, 则官爵、功行载於谱者, 不胜其繁. 宜以远近亲疏为别, 凡远者、疏者略之, 近者、亲者详之, 此人情之常也. 玄孙既别自为世, 则各详其亲, 各系其所出. 是详者不繁, 而略者不遗也. 凡诸房子孙, 各纪其当纪者, 使谱牒互见, 亲疏有伦, 宜视此例而审求之。”

在宋代众多士人家族中, 以欧阳修为代表氏族在经学, 史学, 诗学, 散文等各领域均有极高的造诣, 并於政治上以良好的品行风范. 所以其所建构出的欧阳氏家学与家风, 对宋代整体文化与政治的发展, 贡献良多, 影响深远, 堪为宋代士族之榜样. 故本文乃以北宋时期之欧阳修『欧阳氏谱图』氏族为研究论题, 企盼能从家族史角度出发, 结合文集, 族谱, 墓志铭, 史料记载等文献资料的梳理, 以探究其创制族谱的特徵, 推测其中根本的精神, 冀望能架构出完整的北宋家族文化内涵, 并循此足迹一窥宋代士族文化, 文学与学术发展之风貌.

關鍵辭: 『歐陽氏譜圖』, 譜例, 「瀧岡阡表」, 孝悌養親, 私撰族譜, 5世1圖

이 논문은 2015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